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로켓프레시, 저장 사과 80톤 싸게 푼다 “사과값 급등 부담 던다”

2025. 6. 22.

- **로켓프레시 썸머페스티벌 신선식품·대용량 최대 60% 할인**

2025.6.22. 서울 - 쿠팡 로켓프레시가 사과값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저장 사과 8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할인 판매는 23일 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쿠팡 와우회원은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무료배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저장 사과는 지난해 가을 수확한 고품질 사과로, 저온 저장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해왔다. 외관에 흠이 있는 ‘못난이 사과’ 6톤도 함께 판매돼 실속 소비를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에 따르면 6월 기준 사과 중도매 가격은 10kg당 84,646원으로 평년보다 약 35% 급등했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협력 농장인 디에스푸즈와 협업해 저장 사과를 긴급 방출,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보이는 실속 사과(저장 사과)는 37%할인된 1kg 5,990원에 판매한다.

이번 할인은 여름 정기 행사인 '로켓프레시 썸머페스티벌'의 일환이다. 행사 기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다. 여름철 홈캉스·바캉스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수박, 바나나, 생연어, 돼지왕구이 등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할인율은 카드 즉시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기준이며, 상품 및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은 하림,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등 주요 식품 브랜드 13곳과 협업해 다양한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최대 5,000원 브랜드 전용 쿠폰, 최대 20% 카드사 할인, 1+1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대용량 제품은 최대 50% 할인과 카드사 추가 할인까지 제공된다. 월·수·금요일에는 새로운 할인 상품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쿠팡 관계자는 "로켓프레시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

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